삶을 포기했던 노인에게 찾아온 행운

중병을 앓던 노인이 더 이상 가족들에게 치료비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생을 포기한 순간 거액의 복권에 당첨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중국 후저우에 사는 왕 씨는 2년 전부터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막대한 치료비에 가족과 친구들에게 돈을 빌렸고, 빚은 나날이 쌓여갔다. 게다가 아들의 결혼날짜도 다가왔다.

아들에게 신혼집도 차려줄 수 없는 처지에 더 이상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어선 안되겠다고 여긴 왕 씨는 치료를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생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이 절망의 순간, 왕 씨에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가 사두었던 복권이 중국의 로또 복권으로 불리는 쌍색구 복권에 1등과 2등으로 당첨된 것이다. 그가 받을 당첨금은 무려 754만 1,190위안(약 110만 달러)에 달했다.

그는 지난달 병원 인근의 복권 판매점에서 10위안(약 1.5달러)을 주고 5장의 복권을 샀다. 이중 2장은 지난 2년간 병원에 머물면서 고수해왔던 번호로 2장을 샀고, 나머지 3장은 무작위로 번호를 골라서 샀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2년간 고수해왔던 번호의 복권 2장이 각각 1등과 2등에 당첨된 것이다.

왕 씨는 2년간 고수해왔던 번호에 특별한 사연이 얽혀있다고 밝혔다. 2년 전 병원에 입원해 병마와 싸우면서도 낙관적인 태도를 잃지 않던 그는 어느 날 기이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의 병원 수첩에 적힌 일련번호와 같은 숫자로 조합된 복권 2장을 사서 행운을 빌어보기로 한 것. 이후 2년간 이 두 가지 번호를 고수하며 사 왔던 복권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당첨된 것이다.

돈 때문에 생을 포기하려 했던 왕 씨에게 그야말로 '하늘의 선물' 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됐고, 아들에게는 신혼집을 마련해주고, 빚도 모두 갚았다.

한 달 용돈만 6천 달러의 '슈가베이비'

한 달에 용돈만 6천 달러를 받는 여대생 '슈가베이비' 가 화제이다. 그녀는 '슈가대디' 와 독점적 관계를 맺는 대가로 매달 거액을 받고 있다. '슈가 대디' 는 돈 많은 중년 남성을 일컫는 신조어로, 주로 비싼 등록금과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여대생들과 데이트를 즐기며 대가를 지불하는 일종의 스폰서다. '슈가 베이비' 는 '슈가 대디' 의 상대 여성을 지칭한다.

4일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호주의 대학에서 마케팅을 전공하고 있는 여성인 니코(19, 사진)는 50대 미혼 남성과 데이트를 하며 매달 6,000천 달러의 생활비와 각종 호화 선물을 받고 있다. 그녀는 "슈가 대디 덕분에 전 세계 곳곳의 이국적 휴양지를 여행하고, 요트를 즐기며, 비싼 레스토랑을 찾는다." 고 밝혔다. 그녀는 "솔직히 처음 슈가 베이비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매우 만족스럽다." 고 전했다.

겨우 19살에 '슈가 베이비' 를 자처한 니코는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은 이해하지만 여느 연인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데이트를 즐기고 있다. 내가 머리 손질을 위해 미용실을 찾으면 '슈가 대디' 는 나를 위해 4시간을 꼬박 기다려준다." 고 설명했다. 이어 "중년 남성을 만나 보니 그저 빈둥거리기만 하려는 또래보다 낫다. 슈가 대디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제공하며 매우 신사적" 이라고 밝혔다.

니코는 매달 최소 하나의 샤넬 제품과 생활비를 받는 대신 매주 하루 슈가 대디와 데이트를 하도록 규칙을 세웠다. 그러나 그녀의 슈가 대디는 명품 선물과 집세는 물론 학비까지 제공하고 있으며, 집과 자동차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니코는 육체적 관계가 기본이 되기는 하지만 금전적 보상에 따르는 강압은 없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슈가대디-슈가 베이비 만남 전문 사이트 '시킹어레인지먼트닷컴' 에 따르면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현재 190만 명이 넘었다. 등록금 부담을 이기지 못한 여대생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잡아 정기 모임까지 생겼다.

아들만 13명 … "꼭 딸 낳고야 말 거야!"

아들만 13명을 둔 브라질 부부가 있어 화제다. 게다가 아들들은 모두 축구선수 이름을 갖고 있어 자식들로 축구팀을 만들겠다는 꿈까지 넉넉하게 이뤘다. 평생 농부로 살고 있는 이리누 크루스와 부인 후시클레이데 실바의 이야기다.

기정을 이룬 두 사람에게 첫 아기가 태어난 건 20년 전. 건강한 아들이었다. 아들이면 남편이, 딸이면 부인이 이름을 지어주기로 한 약속에 따라 장남의 이름을 지어준 건 크루스였다. 지독한 축구광인 그에게 '호브슨' 이란 이름을 장남에게 지어줬다. 호브슨은 브라질이 낳은 축구스타 중 하나다.

1년 뒤 차남이 태어났다. 또 아들이었다. 이번에도 이름을 지어주게 된 건 남편 크루스. 그는 둘째에게 헤이난이란 이름을 선물했다. 역시 축구선수의 이름이었다. 딸을 간절히 바란 두 사람은 계속 자식을 낳았다. 그러나 번번이 아들이었다.

마지막으로 딸 낳기에 도전한 건 2년 전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실패였다. 두 사람 품엔 건강한 사내아이가 안겼다.

이래서 갖게 된 자식이 장남 호브슨(20)부터 호날두(2)까지 13명 모두 아들이다. 축구팀을 꾸리면 11명 주전을 채우고도 2명이 남는다. 아빠 크루스는 "축구를 정말 좋아해 아들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축구선수들의 이름을 지어줬다." 며 활짝 웃었다.

부인 실바는 "딸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며 다시 딸 낳기에 도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자식이 13명이나 되지만 한 번도 자신이 이름을 지어주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